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양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남부대학교 · 전남과학대학

단기 4342년 (음력 8월 26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8496호 1판 2009년 10월 14일 수요일

"충장축제 오세요" '제6회 추억의 7080 충장축제'가 13일 전국에서 찾아온 200여개 단체가 참가한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광주시 동구 충장로와 금남로, 예술의 거리 일원에서 개최되는 축제는 오는 18일까지 이어진다. ▶관련기사·화보 3면 /나명주기자 mjna@

"국내 최대 건설업체와 광주 돔야구장 협의중"

박광태 시장 "야구장 건립 계획 이달말까지 결정"

광주시가 돔 야구장 건립을 위해 국내 최대 건설사와 협의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13일 "도급순위 1, 2위급 규모의 대형 건설사와 돔구장 건립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며 "해당 업체는 이미 야구장 예정부지에 대해 현장조사까지 마친 상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구에서도 돔구장을 추진하고 있어 대구시와 공동으로 돔구장 외에 어떤 부대사업을 할 것인지를 놓고 해당 건설사와 조율하고 있다"며 "만약 해당 건설사가 돔구장을 포기할 경우 일반구장을 건립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돔구장이든, 일반구장이든 간에 이달 말까지는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프로야구 한국시리즈가 열리는 15일을 전후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던 광주 야구장 건립 계획은 다소 늦어지게 됐다.

광주 야구장을 돔구장으로 건립할 경우 관람석은 2만5천~3만석 규모이며,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민간자본 4천억원을 투입해 2013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반면 일반 야구장은 건립비가 1천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규모는 2만석 미만으로 건립할 방침이다.

야구장 부지는 당초 광산구 옥동차량기지 부근을 검토했으나 접근성이 떨어져 배제했고, 현재 접근성이 용이한 그린벨트지역 2곳 정도를 최종 후보지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야구장은 광주시의 부담을 줄이면서 최고 시설로 건립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며 "일반 야구장은 시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비 부담이 있지만, 민자로 건립되는 돔구장은 건설·운영비 부담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시중에 돔구장으로 건립할 경우 운영비나 관람료 등 시민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설이 나돌고 있으나 이는 근거없는 얘기다"고 일축했다.

박 시장은 또 프로축구팀 창단과 관련해 "상무프로축구단과의 계약이 만료되는 내년까지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

광주가 배워야 할 '랑스의 기적'

온시민 똘똘 뭉쳐 루브르 박물관 분관 유치
亞전당 허송세월 광주 조기건립 힘 모아야

랑스=정상필 EU특파원

프랑스의 수도 파리에서 북쪽으로 200㎞나 떨어진 소도시 랑스(Lens)는 지난 2004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관련기사 12면〉

인구 3만의 '꼬마' 도시가 쟁쟁한 도시들을 제치고 루브르 박물관 분관 유치라는 '기적'을 일궈낸 때문이다. 오는 2012년 개관할 루브르 분관은 연면적 2만8천㎡, 전시 면적이 6천㎡에 육박하는 매머드급 미술관으로, 랑스를 연간 50만명이 찾는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할 희망으로 여겨지고 있다. 루브르 분관은 개관 10년째 15억7천만 유로(약 2조7천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한 스페인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을 능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랑스는 현재 추진 중인 광주문화수도 조성사업과 성격면에서 많이 닮아 있다. 프랑스 정부가 '루브르 랑스 프로젝트'라는 지방분권 정책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고, 엄청난 재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문화시설 건립이라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그러나 1년 동안 5월 단체 등의 별관 철거 반대 논란에 발목을 잡혀 문화전당 건립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는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는 사뭇 다르다. 랑스가 루브르 미술관 분관 유치라는 희망을 일궈낸 것은 광주와 달리 순전히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열정이 밑거름이 됐다. 그 자양은 오는 2012년 개관할 루브르 분관으로 다시 모아지고 있다.

랑스 주민들은 지난 2004년 미술관 분관 유치를 위해 '루부르 랑스 협회(A2L·Association Louvre-Lens)'를 구성해 루부르 분관 유치 활동을 펼쳤다. 이 협회는 당초 계획대로 '루브르 랑스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과정을 감시·견제하고 있다.

특히 전체 42명의 이사진 중 일반 회원인 제3그룹에 할당된 수가 21개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 주민들이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시 랑스 주민들은 '루브르 랑스'의 홍보대사로 나섰으며, 루브르 본관은 물론 정부와의 협의과정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루브르 분관 유치의 원동력이 됐다. 자생단체인 시민후원협회는 2012년 개관을 앞둔 루브르 분관의 든든한 후원자로 활동하고 있다.

랑스의 사례는 도시의 미래를 바꾸는 것은 시민들의 참여와 지원이라는 전범을 보여주고 있지만, 광주시민 스스로 발목을 잡은 문화전당 건립사업은 1년 여 동안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옛 전남도청 별관 철거 논란이 지난 9월 정부의 별관 일부 존치 결정으로 일단락 돼 문화전당 조기건립에 시민사회의 힘이 모아져야 할 때지만, 광주의 미래인 이 사업은 여전히 시민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다.

루브르 랑스 협회 대표인 제랄드 배롱(Gerald Vairon)씨는 "도시의 주인인 시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하지 않으면 도시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며 "우리의 활동은 루브르 분관을 유치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관을 통해 랑스가 세계적인 도시가 된 뒤에도 계속될 것이다"고 말했다. /camus@kwangju.co.kr

도청별관 농성 해제

'5·18사적지원형보존을 위한 광주전남시도민대책위원회가 14일 옛 전남도청 별관에서 철수한다.

시도민대책위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도청 별관 상황실을 철수한 뒤, 그 배경과 향후 활동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도민대책위는 지난달 22일 정부가 별관을 일부 존치키로 결정함에 따라 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기기자 penfoot@

조대부고 총동창회 친선 체육대회
♠2009년 총동창회 체육대회♠
◈ 일시: 2009. 10. 18(일) 09:30
◈ 장소: 모교운동장
☎ 062)224-1461, 062)232-6897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총동창회장 양 재 근

한전, 본사 이전 또 연기

혁신도시 부지매입 예산 내년으로 넘길 듯

올해로 예정됐던 한국전력공사의 나주 혁신도시 이전부지 매입이 연기될 것으로 보이면서 공기업 이전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13일 지식경제부와 한전 등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예산에 본사 부지매입 비용 169억원 등을 책정했지만 자금 여건 등 상황을 고려해 이를 내년 예산으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전 김쌍수 사장도 전날 국회 지식경제위 국정감사에 출석,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아직 본사 이전 부지 매입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현재 재정 여건상 불요불급한 예산 외에는 급한 사업으로 전용(轉用)하고 있다"며 "내년쯤 매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같은 당 김재균 의원이 "한전이 부지매입을 미루는 것은 한전 이전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면서 "작년 국감에서 김 사장은 올 연말까지 이전부지를 매입하겠다고 분명히 답변했는데 오늘 위증하는 것이냐 위증죄로 고발하겠다"고 연내 부지 매입을 촉구하자 김 사장은 "의원님의 요청대로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김 사장의 이 같은 발언에도 불구, 한전 등 공공기관 이전이 애초 계획된 2012년까지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처럼 한전의 부지매입이 늦어지는 등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지연되는 이유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며 행정복합도시를 비롯해 전반적으로 정부부처와 공기업 지방 이전이 재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대부분이다. /박지경기자 jkpark@